

복음 엘리트를 키우는 교회

예레미야 1:4-10

이장희 목사님

서론

(1) 렘넌트들을 향한 중요한 기도제목인데, 나는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 아이들을 복음 엘리트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목표다.

① 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깨달아진다.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

②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져야 하고, 깨달아져야 하며, 체험되어야 한다. 체험되면 각인되고 인생이 바뀐다.

③ 복음이 체험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복음의 누림이다. 누림이라는 것은 반석이 된다는 것이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에 기준을 세워서,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된다.

④ 이게 되어야 아이들은 그때부터 복음의 증인이 된다.

(2) 이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가, 성공자를 살리는 멋진 성공자가 되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이 부분의 응답을 받도록 기도한다.

1. 말씀 각인

복음 엘리트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우리 후대들이 말씀이 각인되어야 한다.

(1) 첫 번째는 자세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요1:1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이 각인되어야 하는데, 기도제목이기도 하고 중요한 언약이기도 하다. 나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다.

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응답을 받을 가장 기본이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이것이 축복받을 가장 키워드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시100:4에, 어디에 있든지, 그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말씀을 제대로 받고 나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②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지만 사무엘에게 가르친 것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이다. 나와 후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③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경험, 내려놓아야 한다. 내 직분, 신앙의 연륜, 다 내려놓아야 한다.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 후대들이 이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복음 엘리트가 된다.

④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한다. 벰전2:2에, 갓난아이가 어미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다. 교회를 가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 말씀 듣는 자세가 영적 상태다. 보통 다락방 교회들은 영적으로 전부 건강하다. 얼굴을 보면 배고픈 얼굴로 쳐다본다. 기존 교회를 보면 전부 소화불량에 걸려 있다. 장로님들은 아멘을 고개로 한다. 뒤로 하고 (웃음) 소화불량이다. 마4:4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다. 겔3:1-3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입

을 벌리고 먹어야 한다고 했다. 창자까지 집어넣으라고 했다. 창자에 들어가야 소화가 되고 온 몸에 영향이 간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말이다. 그렇게 안 되면 마른 뼈다귀다. 복음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못 먹으면 마른 뼈다귀가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대통령 앞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다. 우리 옆 동네가 청와대다. 언젠가 부를 줄 기다리고 있다. (웃음) 나는 궁중요리사다. 온갖 요리를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화불량에 걸려 있는 사람은 죽 밖에 못 먹는다. 말씀을 받을 때는 갈급함으로 받아야 한다. 시42:1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한다고 했다. 다윗이 뭇가 부족한 게 있잖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한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갈급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하고, 후대가 이렇게 들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교회 렘넌트들은 등을 어디 대고 있는가. 전부 앞으로 숙여서 말씀을 받는다. 어른이 잘 먹어야 같이 잘 먹을 수 있다. 지난주에 중국 광저우에서 찬양집회를 했다. 200명이 모였다. 중국이라 하면 집회가 불법인데, 광저우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1 했는데 하나님은 10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김형길 목사님과 같이 가면 너무 잘 먹게 된다.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다. (웃음)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전염되어서 나까지 잘 먹게 된다. 어른이 잘 먹어야 아이도 잘 먹는다. 어른이 소화불량 걸리면 아이들도 못 먹는다. 말씀을 잘 드시기 바란다.

(2)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고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요19:30,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 버렸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것을 내 마음에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한다. 이 마음의 믿음으로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과 결론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종교다. 하나님께 이것은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 회복하고, 믿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잡아야 한다. 약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진짜 믿으면 뭐가 붙잡아지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 버린다. 약속은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다. 이 약속이 된 것이 나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다. 내 이름이 이장희이다. 길 장, 빛날 희다. 우리 할아버지가 길이 빛난다고 지었다. 복음으로 해석하니깐 진짜 맞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다. 내 이름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류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립예배에 오셔서 이름 이야기를 하셨다. 전화번호부에 이상한 이름이 많은데 왜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우리교회에 장로님이 7명인데, 여자 장로님이 3명이다. 여자 장로님을 앞으로 더 많이 세우려고 한다. 작년 8월에 설교를 하다가 콧물이 나와서 뭐가 했더니 피였다.

이게 안 멈추는 것이다. 강대상 뒤에 앉아있는데, 온 성도가 쳐다보는 중에 코피가 터진 것이다. 남자 장로님들은 관망하고 있더라. 그런데 여자 장로님 삼총사가 수건을 쥐고 뛰어오더라. 코를 막는데 입으로 계속 나온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여자 장로님이 119를 불렀다. 그래서 옆의 병원에 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코 안에 있는 큰 뿔뿔이 터졌다는 것이다. 때워야 한다고 했다. 납땀을 하느니 연기가 나고 피가 뿔뿔했는데, 의사가 말했다. 당신이 옆에 병원이 있어서 살았다는 것이다. 항상 병원 옆에 있으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행기를 타면 병원이 없지 않나. 그때부터 비행기를 목숨 걸고 타게 되었다. 막내 여자 장로님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능력이 있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런데 이분 남편 이름이 백수다. (웃음) 무슨 부모가 자식 이름을 백수로 짓나 하는데, 이름대로 백수다. 여자 장로님이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사업을 하면서 사고를 친다. 그래서 장로님이 와서 하소연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상담을 한다. “목사님,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죠?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자꾸 까먹습니다.” “장로님, 남편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뭇 하였던 모양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남편에 대해서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께 남편을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요삼1:2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장로님이 새벽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한 것이다. 그래서 또 불렀다. 나는 이름을 또 잘 짓는다. 태어난 아이들 이름을 내가 다 짓는다. “남편 이름을 정했습니다.” “뭘입니까?” “김성공이라 하십시오.” 볼 때마다 김성공씨 하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잘 때도 축복하면서 남편을 김성공씨 하고 부른 것이다. 6개월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되었다. 응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게 뭐가? 이름을 바꿔야 한다. 어떤 이름인가? 말씀에 근거한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나다.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한다.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인데, 고3, 고2다. 첫째는 요셉이고 둘째는 바울이다. 류목사님이 한참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언약을 잡았다. 연년생인데,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 그래서 첫째는 요셉처럼, 둘째 아이는 바울처럼 세계복음화하라고 지었다. 그런데 하나교회에 있을 때인데, 동료 교역자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지만 좀 삐딱하더라. “요셉이 바울이 둘 다 감옥 가야 되겠네?” (웃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첫째는 나를 닮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둘째는 엄마를 닮아서 신앙생활을 잘 못 한다. (웃음) 그런데 작년에 온 가족이 램네프트대회를 갔는데, 나는 자리가 제일 뒷자리였다. 은혜 속에서 램네프트 나이트를 하면서 램네프트 결단의 시간을 하게 되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램네프트는 일어나라고 했는데 1만 명이 다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나 비록 언약하지만.” 내가 지은 찬양 아니냐. (웃음) 만 명의 램네프트가 인생을 결단하면서 내가 지은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나.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하는데, 그런데 필름 끊기는 사건이 터졌다. 누가 갑자기 내 등을 치더라. 돌아보니 둘째였다.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그 중요한 시간에 내 등을 치더라. “아빠, 뭐해?” 집사람이,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돈을 얼마나 들었는데.” 그래서 얘기했다. “여보, 뭐가 문제데? 은혜의 자리에 있잖아?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데리고 오면 돼.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거야.” 이름이다. 이름대로 된다. 우리 노회 목사님 아들 중에는 주역이가 있다. 몇 년에 태어난 건지 계산이 다 된다. 말씀에 근거한 그 이름대로 된다. 내가 마음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다. 말씀의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약속을 이름으로 받아라.

③ 이것이 제목이 되어야 한다. 제목이 무엇인가? 기억하는 것이다. 제목

과 이름은 같은 것이다. 기억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기억을 못 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모른다. 그래서 제목이 뭐가? 임마누엘이다. 창39:2-3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함께 하셨는가? 아니다. 창37:1-11에, 세상의 미래와 요셉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언약으로 주셨다. 이것을 요셉이 약속으로 해서 기도제목으로 붙잡고 있었다. 창37:11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했다. 이것을 원어로 ‘사마르’라고 한다.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보존했다, 지켰다는 것이다. 기도제목이 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다. 보존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게 요셉에게 있었다. 창39:2-3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이 꿈을 24시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다. 제목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게 되어야 그때부터 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분별하게 된다. 이것을 목상이라 하고, 짐중이라 한다. 기도라고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실에 나오는 문제는 출처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다. 그러면 전도로 해석하면 성령인도를 분명히 받게 되어 있다. 6년 전에 나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오늘 저녁에도, 내일에도 죽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래서 이야기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40년 동안 준비하셨으니, 앞으로 40년 더 쓰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의사가 말을, “홍!” 여자 의사인데 아주 못됐다. (웃음) 의사가 집사람을 부르더니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평평 울었다.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여보, 의사 말 믿으면 안 된다. 나는 지금 편하다. 내 몸 상태를 안다. 나는 이대로 안 죽는다. 현실, 상황,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내 안의 그것이 더 크다.” 현실만 바라보면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가 나에게 스테로이드를 20알을 줬다. 그리고 임상실험용 약을 주더라. 먹는데 시멘트 냄새가 났다. 장이 다 터져서 혈변이 나왔다. 폐가 찢어져서 공기방울이 올라와서 목이 터졌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했다. 그렇게 해야 폐가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때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살려주시고, 할 일 없으면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니까 가겠습니다.” 전도로 해석한 것이다.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때 두 단어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다. 그게 선교와 후대였다. 그때 내가 울컥한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내 삶이 연장된다면 그 이유는 선교와 후대구나.’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얻었다. 신앙의 열 가지 발판을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시한부 인생이라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한다. 그러면 가장 가치있는 인생이 뭐가? 전도자의 인생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연수가 나왔다. 의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5년 산다고 했다. 지금 6년째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떨어지면 의사 말이 생각난다. (웃음)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내 삶이 그리 길지 않구나 하고 삶의 연수를 계산하니까, 왜 바울이 그 고백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왜 걸어가도 되는데 달려갔을까? 인생에 대해서 계산한 것이다. 사역의 속도가 나온 것이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RU에서 류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사역이라고 했다. 급한 것이다. 그래서 사역의 속도가 나오더라. 나는 박지은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전도훈련을 잘 받았다.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프면서 깨달았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쓸모없으면 보내시고 쓰시려면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졌다. 언약교회 김상민 목사님이 내 친구인데, 나에게 이런 포럼을 하더라. “나는 당신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다. 당신 아프고 나서 체험한 그것, 혹시 나 안 아프고 체험할 수 없을까?” (웃음) “홍, 어디서 이걸 안 아프고 체험하려고 그래? 정말 하고 싶으면

아파 봐야 돼.” “이이고, 아픈 것은 못 한다.” (웃음)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였지만, 해석과 분별을 잘 한 것 같다. 전도로 해석했다. 그것이 살 길이었다. 성령인도를 잘 받았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갈등, 위기가 올 때마다, 선배 목사님들도 그러시지만, 전도로 결단을 내렸다. 내게 주신 말씀대로, 선교로 결단하고, 후대로 결단한다. 그게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인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 2년 반 동안 중국을 50번 들어갔다 왔다. 나는 비행기를 타려면 휠체어를 타야 한다. 내 병이 류마티스 피부근염이다. 면역성 질환인데, 내 병은 희귀 병이고 불치병이다. 치사율이 90%다. 주치의가 6명을 연구했는데 5명은 죽었다. 나 혼자 살아있다. 이 문제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한 은혜를 주셨다. 주치의가 장로님인데, 항상 소견서를 써야 한다. 그래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 10줄을 쓰는데 9줄은 ‘이렇게 중환자다’ 하는 것이고, 1줄은 ‘그래도 비행기는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치의가 선교하려고 의사가 된 장로님이다. 그래서 나를 도와준다. 공항에 가면 휠체어를 타고, 또 산소호흡기를 맨다. 비행기를 타면 30분 마다 스튜어디스가 와서 숨 쉬는지 확인한다. 그렇게 해서 50번을 들어갔다.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증거를 주셨다. 너무 결정을 잘 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나는 선교의 원년을 선포했다. 나는 휠체어 타고 중국 선교를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찬양문화선교국을 세웠다. 그 일꾼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성령인도를 받지 않았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빠르게 해야 한다. 복음과 전도로 해석하고 분별하면,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가 나온다.

④ 그래야 내 삶이 반석이 된다. 반석은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이미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났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게 영적 구심점이다. 반석이 되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석이 되어야 열쇠를 가지고 영적 주도권을 현장에서 갖게 된다. 나를 통해서 흑암이 꺾이고 현상이 변화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세상에서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지만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다.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는데 형통했다. 어디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후대를 이런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먼저 각인되고, 이런 각인을 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2. 기도 각인

두 번째는 기도 각인이다.

(1)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원니시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맞아들어가는 것이다. 또 기도가 무엇인가? 구원과 함께 내게 주신 것이 있다. 너무 많지 않다. 골2:2-3,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2)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근본을 누리는 기도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다. 나는 성경구절을 놓고 기도한다. 창3:15, 요일3:8,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여, 내 생각 속에, 가족 속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흑암은 꺾인다. 창3:21, 롬8:1-2,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여기에 오는데, 사단이 참소를 하더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성례식하고 하느라고 바빴다. 아침에 집사람과 크게 싸웠다. 별 것 아닌데. 그 불뚱이 아이들에게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또 뭐라 했다. 그 영적 상태로 겨우 2부예배는 드렸는데, 사단이 차 타고 오는 중에 참소하더라. “네가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최정웅 목사님 교회 가서 어떻게 설교하겠느냐!” 아, 죽겠더라. 휴대폰 끄고 돌아갈까 싶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흑암이 꺾여 버리더라. “문제될 것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도 필요해. 내가 어쩔래? 참된 그리스도 되신 주 예수여, 문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7:14,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요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여, 현실에서 불신앙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를 계속 한다.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끝난 것이다.

(3) 그리고 나의 기도는,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누릴 것, 신분 누리는 기도다. 요1:12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다. 골2:2-3,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 보장 보호하신다. 복음 주셔서 전도자로 만드셨다. 그것 때문에 내 과거가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하고 계신다. 앞으로 하실 것이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겠나? 사람의 평가 듣지 마라.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주셨는데, 복음화시키셔서 전도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 과거가 있었고 부모 자녀 남편 아내가 있었던 것이다. 그 눈으로 보니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이다. 평안한 것이다. 신분 누리는 기도다. 뱀전2:9,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현장의 흑암을 누르고 다스릴 자다. 우리의 신분이다. 어떻게 하나? 요16:24,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 우리교회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권사님의 마음에 확신이 온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도가 놀라서, “에이 미친 사람 났네!” 그러면서 가더라는 것이다. 어쨌든 그리스도다. (웃음) 우리 어머니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 정신병 환자가 있다. 이름이 용팔이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부르게 한 것이다. 반대쪽 옆에는 영락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복음을 안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용팔이와 장로님이 맨날 싸우는 것이다. 어느 날 용팔이가 도끼를 들고 그 장로님 죽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고향을 질렀다. “용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용팔이가 “어, 주 예수 그리스도? 맞아!” 하고는 내려놓고 가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이, “야, 능력있네. 나도 써먹어 봐야겠다.” 그랬다가 죽을 뻔 했다. 알고 써먹어야지. (웃음) 롬1:4-5, 우리는 여러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 이름이다. 딤후4:5에, 말세 시대 살릴 전도자다. 나와 여러분은 전도자다. 행16:31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가정, 가문 복음화의 신호다. 나는 가정 가문 살릴 선교사다. 이 신분을 누려라.

3. 전도 각인

전도 각인이다.

(1)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먼저 이 앞 부분이 되어야 한다. 확실한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 불신자 상태가 있다. 내 안에 있는 것부터 꺾어야 하고, 상대방 전도대상자에게 있는 것을 꺾어야 한다. 요8:44,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놀리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지고 꺾어야 한다. 출20:3-5, “하나님보다 우상 사랑하면서 잡혀 사는 인생,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죄의

집은 내려놓을 데가 없다. 예수님께만 내려놓을 수 있다. “죄의 집, 고달픈 인생 짐을 지고 가는 내 인생이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8:4-8이다. 이것이 육신의 문제로 오지 않나? 가정, 건강, 경제, 자녀 문제로 오지 않나?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낫게 한다고 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 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27:25, 후대가 망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사6:13,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 그릇터기는 거룩한 씨라고 했는데 말씀 아닌가. “우리 후대, 전도대상자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히9:27, “소속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전도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2) 그러면 오래 된 것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① 현장에는 흑암 줄기가 있다. 이게 문화가 되어서 자리잡고 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중심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 흑암 줄기가 있다.

② 이것이 사람들을 묶고 있다.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풀어 버려야 한다.

③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④ 그래서 영적 지도를 그려야 한다. 마16:19에, 예수이름으로 기도하면 풀고 묶는다고 했다. 영적 지도를 그리고, 리스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3) 시급한 것이 있다.

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전도의 문이다.

②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③ 요즘 우리교회는 300명 리스트를 가지고 조각 맞추기를 한다. 신기하다. 한 사람이 300명이면 몇 백 명이 같이 가지고 있다 하면 아마어마하지 않겠나? 그런데 신기하다. 다같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사건이 생겨서 영접하고 그런다.

④ 그래서 전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조금 넓게 현장을 볼 필요가 있다.

(4) 그러면 영원한 것이 보인다. 그게 제자다. 제자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와 여러분이, 복음 엘리트를 키우려면, 내가 먼저 말씀 각인, 기도 각인, 전도 각인이 되어야 한다.

결론 : 성경적인 전도 모델

나는 류목사님 만나서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깨달아가면서,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이다. 목회를 넘어서, 지역을 책임지고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1) 출발이 전체다. 성경적인 전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① 응답받을 시작이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사업과 학업에, 지역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곧 미션이다. 이것은 굉장한 힘이다. 이 기준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다. 흔들린다. 위기가 오면 못 넘어선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넘어서게 한다. 나는 죽음의 목전에 갔던 사람이다. 거기에 가니까 의사도 집사람도 아니다. 하나님만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순간의 가장 마지막까지 내게 남은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미션이었다. 이 말씀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명, 사명, 소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것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미션을 찾아야 한다. 심방을 받을 때 그냥 받지 마라. 가정, 가문에 응답받을 말씀이 있다. 거기에서 응답이 시작된다. 개업예배 때, 결혼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다. 놓쳐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된다. 후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② 이것을 가지고, 눈이다. 복음으로, 영적으로, 현장을 분석해야 한다. 잘 들여다보면 된다. 복음으로 영적으로 현장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는 것이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제양지대를 분석하고 있으면 된다.

③ 이것을 가지고 응답받을 아주 구체적인 기도제목이 나온다. 어찌 기도 제목이 없이 응답을 받겠는가. 분명한 기도제목이 있어야 한다.

④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업, 우리 지역을 두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자료가 있다. 나는 이것을 고유한 전도라고 한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찾도록 몸부림쳐야 한다.

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다. 제자와의 만남인데, 한 팀이다. 영적 아군이다. 우리 인생에 이제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내 사업 파트너 중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다.

(2) 이 전체를 가지고 제자를 찾고,

(3) 시스템을 세우고,

(4) 재생산시켜서 파송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시작이 어디인가? 말씀이다. 우리가 다락방전도운동을 하면서 가장 핵심이 성경적이라는 부분이다. 무엇인가?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전도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하다. 그런데 성도들이 생각보다 시작할 말씀이 없더라. 내 인생의 위기에서 내가 붙잡을 것은 말씀 뿐이었다. 내가 생각하고 붙잡고 마음먹은 대로 현장은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미션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담임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후대들이 성경적인 전도의 모델의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이 모델 되시기 바란다. 최고의 장학사업은, 말씀 각인, 기도 각인, 전도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후대를 세워라. 그 배경 위에서 후대를 물질적으로 밀어주는 것이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